

연세의대 인정평가 결과 : 종합 및 제언

한국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2000년도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위해 구성된 본 평가단은 동위원회의 2000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인정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연세의대가 제출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자체평가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연세의대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그리고 행정 및 재정 영역에 대한 서면평가를 시행하였고 이어서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연세의대를 현지 방문하여 서면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본 평가단이 수행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영역별 서면 및 현지방문 평가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결론과 권고 사항이다.

연세의대는 1885년 미국 의료선교사 알렌의 건의에 의해 당시 왕실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 광혜원(廣惠院)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광혜원 내에 개설한 세브란스 의학교를 통해 1908년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한 이후 일제를 거쳐 1947년에는 세브란스 의과대

학으로 승격되고 1957년에 오늘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오랜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연세의대는 그 동안 유능한 많은 의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 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을 뿐 아니라 항상 다른 대학들에 앞서 새로운 의학교육 과정을 도입 실시하는 등 의학교육 발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 결과 1996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의학계열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번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의과대학 인정평가에 다른 두 대학과 함께 일차로 이 평가에 임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금번 본 평가단이 연세의대에 대해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그리고 행정 및 재정 등 5개 영역에 대해 그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영역 평가에서는 해당 대학의 교육목표 구성과 교육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지도, 그리고 이 교육목표가 실제 교육과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연세의대의 경우,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된 교

육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각종 유인물에 포함시키거나 교내 강의실 등에 게시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수업이나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 전체에 이들 교육목표가 반영되도록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규 교과목별 수업외에 의학과 2학년과 4학년에서 기초연구 선택 및 특성화 선택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4주간의 지역사회 의학실습을 시행하는 점, 그리고 PBL이나 OSCE와 같은 개선된 학습방법이나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이 대학 교육과정이 갖는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의학교육 전담학과인 의학교육학과를 중심으로 꾸준히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는 것은 큰 강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사이의 연계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든지, 많은 학생에 대한 분반실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일차의료수준의 임상의학 실습기회 확충도 연세의대 교육과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둘째로, 학생영역 평가에서는 학생지도 체계와 학생장학 및 복지제도, 그리고 학생들의 학내 외 활동상황과 학습성과(의사국시 합격률) 등이 적절한 지지를 보도록 되어 있다.

연세의대의 경우, 예과·본과생들로 고루 구성된 수직적 담임반 지도교수제와 각 학년 지도교수제는 학생지도의 종적 및 횡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지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학생회나 자율적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도 학생과 교수간에 긴밀한 협조와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연세의대에는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으며, 장학금 수혜자는 타 의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의대 동창들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광혜장학금에서의 수익에 의한 무이자 대여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로 이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 학교에 기부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학생복지에 있어서는 기존 기숙사 및 최근 완공된 기숙사가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며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산되어 있는 학생 관련 시설들은 추후 학생회관의 개념으로 모아져 보다 나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점차 증가하는 여학생들로 인한 화장실 및 여자 휴게실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연세의대의 학생 참여 연구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발표와 논문 게재도 잘 이루어졌으며 대학의 지원체계도 적절하였다. 이는 연세의대의 교육목표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향후 점차 보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사국가고시는 재학생의 경우 거의 전원이 합격하였으나, 졸업생의 합격률이 저조하여 학교 당국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진로를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연세의대는 타 대학과 비교하여 탁월한 지도 및 복지제도와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그러나 연세의대가 추구하는 세계적인 대학의 위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학생복지에 대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수 영역에서는 기초 및 임상교원 확보의 적절성, 교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적절성, 그리고 교수개발 실태의 적절성 등 3부문에 걸쳐

평가가 진행되었다.

연세의대의 경우 기초 69명, 임상 339명의 전임 교원을 확보하고 있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본 기초의학 8개 교실에만 74명의 조교가 근무하고 있어서 학생 실습과 교수 연구를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있었다. 교수들의 연구 및 학술활동은 교수 1인당 연평균 1.67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SCI논문은 교수 100명 당 약 51편을 발표하여 평가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들의 교외연구비 수혜실적도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고 있었으며 특히 연구비 수혜교수가 전체교수의 60% (1999년도 기준)를 넘어 연구활동이 일부 교수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교수 개발 부문에서도 해외 연수나 학회 참석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었고 특별히 의학 교육과 관련된 연수 기회를 학교측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띠었다. 또한 교수 업적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포상하는 시스템이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잘 되어 있어 교수들의 사기 진작과 의욕고취에 큰 봉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 영역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으나 인문사회의학을 전담할 전임교수와 학과가 개설되기를 희망한다는 점, 교수연구를 보조, 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교수 업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가 과감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은 이제까지 연세의대가 선도적으로 의학 교육계의 변혁을 주도해 온 전통에 기대어 주문하고자 하는 바들이다.

넷째로, 시설·설비영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교육 및 지원시설과 교수시설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연세의대의 경우, 교육 기본 및 지원시설의 적절성과 교수 시설에 있어 평가지표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타 대학의 귀감이 된다고 사료된다. 특히 사립 대학으로서 현재 규모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다는 점은 타 사립 대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끝으로, 행정 및 재정영역 평가에서는 연세의대의 대학행정 및 재정체계와 운영실태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행정체계와 운영에 있어서, 연세의대는 사립대학으로서는 드물게 학장의 재량권이 잘 확보되어 있으며 학사행정을 위한 일반직 인력도 충분한 편이어서 대학운영이 매우 원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대학 운영 재원도 큰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많은 동문들의 참여로 여러 가지 형태의 대학지원 기금이 마련되어 교수와 학생들이 고루 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학운영과 교육을 위한 의사결정에 교수들의 의견개진과 참여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대학발전 계획을 위한 대학구성원들의 의지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의과대학으로의 발전을 구상하는 연세의대로서는 발전계획 안에 각종 학사운영을 위한 전문지원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문제와 아울러 대학 재정 규모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영역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세 대학교 의과대학은 역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

진 명문 사립의과대학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이상적인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우리나라 의학 교육을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 몇 가지 새로운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도입이나 교육과정의 질관리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의학교육 전문연구 기구인

의학교육학과를 중심으로 개선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도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평가단은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제2주기 의과대학 평가가 시작되는 2004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완전인정(full accreditation)해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